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9호 2015년 2학기





CONTENS

간호학과 소식

- 04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 06 미국간호사(NCLEX-RN) 면허 합격
- 07 “2015 대한민국 경영대상”,
“2015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수상
- 08 Global Nursing을 이끌어주실 신입교수

Global Woosong Nursing

- 09 미국간호사(NCLEX-RN) 합격 수기
- 11 LA 해외연수
- 12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자 인터뷰
- 14 ICN 2015 Seoul 회의 자원봉사

나이팅게일 선서식 & 간담회

- 15 제 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학부모 간담회

우송간호 역량 강화

- 16 간호학과, 우송대학교 BEST PRACTICE 선정
- 17 다양한 특강소식
 - 국제보건의료분야의 이해 특강
 - 글로벌 간호사 양성 특강
 - 국내보건의료분야의 이해 특강

간호학과 동정

- 19 2015학년도 입학식
간호학과 신입생 Orientation
상큼 발랄한 우송대학교 새내기들의 축제 “새내기 콘테스트”
- 20 간호학과 선후배가 하나 되어 즐기는 시간
스승의 날 행사
- 21 우송대학교 체육대회의 뜨거운 열기속으로
미리 가 보는 대학

편집후기

- 22 2015년도 1학기를 보내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류 수 진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15년 5월 1일 우송대학교 우송관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한 '2014년도 하반기 간호교육 인증 방문 평가'가 있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비전, 교과과정, 학생, 교수, 시설, 교육성과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주 담당 교수님이 자료수집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현장방문 평가 및 핵심수기술 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간호교육인증 평가는 3년여에 걸쳐 우송대학교 간호의 출발부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열린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간호의 국제화'라는 비전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언제,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Interview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인터뷰

Q: 인증평가를 통과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은영 학과장

간호학을 가르쳐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모든 간호대학의 기본적 목표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그냥 간호사가 아닌 경쟁력 있는 '글로벌 간호리더'로서의 간호사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화두입니다. 이번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2009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첫 입학생이 들어와 2015년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의 6년이란 시간은 학생의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모든 교수가 한 마음 한뜻으로 매진한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에게는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최고의 역량과 가능성을 위해 훌쩍 성장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의 국제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로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문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그 날 까지 Pride Up 우송간호!!!

강창희 자체평가위원장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간호학과 개설 이래 처음으로 받는 평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우리학과가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그동안 했던 여러 활동 자료를 찾아서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 보고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모든 교수님들이 밤을 새웠으며 오타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과정에서 긴장되고 잘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간호학과가 앞으로도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인증평가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열심히 해주신 것은 물론, 우송대학교 본부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교본부, 학과 교수님, 특히 핵심수기술 평가를 준비한 4학년들을 포함한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명 (간호학과 4학년)

간호교육인증 준비는 약 두 달 정도 했습니다. 평가 3일 전까지 5일 중 2일 동안 10개를, 나머지 2일 동안 10개를 연습하였고 마지막 하루는 자신이 부족한 종목을 연습하였습니다. 그 후 1차 선발명단에 포함되어 이를 동안 20개의 종목을 계속 연습하였습니다. 연습 기간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인증 평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평가 대상자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인증평가 당일까지 함께 노력해주고, 긴장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큰 긴장 없이 맡은 것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간호사(NCLEX-RN) 면허 합격



“Global Nursing”을 목표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송대 간호학과의 교육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이 NCLEX-RN 면허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대부분의 졸업생이 신규로서 병원적응에 바쁜 와중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어 의의가 크다. 합격자들은 “학과 수업으로 2년간 NCLEX-RN강의를 듣고, 원서로 공부를 하다보니,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 큰 부담이 없었고, 당연히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였다.



2015 大韓民國 經營大賞 Korea Management Awards, 2015

지속가능경영대상 · 인재경영대상 · 고객가치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 기술혁신경영대상

“2015 대한민국 경영대상”, “2015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수상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 세계로 뻗는 ‘취업에 강한 대학’

우송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아일보와 한국소비자학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경영대상 인재경영대상 인재육성부문”을 수상하였다. 이는 우송대학교가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2015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에서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Global Nursing을 이끌어주실 신입교수



Jessica M Yi

분야 Maternal Nursing
학력 Masters of Science in nursing DePaul University, Illinois, U.S.A
Bachelors of Science in Behavioral Science Wilmington University, Delaware, U.S.A

우리 학생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요. 그런데 분명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거예요. 본인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 있을 건데, 그럴 때 일수록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요. 만약 본인이 간호사가 정말 꿈이라면 끝까지 가보세요. 교수님들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Pratibha Bhandari

분야 Adult Nursing
학력 PhD & MS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BSN, College of Nursing, Christian Medical College & Hospital (CMC&H), Vellore, Tamil Nadu, India

우송대 간호학과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특히 영어분야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졸업 연구를 하기위해서 다녔던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했습니다. 그건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여기는 영어로 배우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과제부터 시작해 프레젠테이션도 모두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송지아

분야 여성간호학
학력 충남대학교 간호학사,
을지대학교 간호학석사, 박사

우송대학교의 교육과정도 좋고, 내가 대학을 다녔을 때 NCLEX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송대학교에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같은 지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고 넘어서 있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재량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미국간호사(NCLEX-RN) 합격 후기



“NCLEX-RN는 국가고시와 달리 중재가 정말 중요해서 주로 중재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송준은 동문 (2013졸업, 신촌세브란스병원 근무)

Q : NCLEX-RN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미군 121병원 실습 후 군이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미국 간호사 면허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면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 NCLEX-RN를 준비하시며 특별한 공부방법이 있으셨나요?

A : 우선 책을 1~2번 훑듯이 정리했습니다. 준비 초반에는 사소한 부분에 매여 진도를 못나갔지만 NCLEX-RN는 국시와 달리 중재가 정말 중요해서 주로 중재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저는 문제 풀이 강의로 문제풀이 팁이나 사고하는 과정, 접근방법 등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많이 푸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며 NCLEX-RN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좀 더 경력을 쌓은 후 국제진료소에서 근무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IGN 수업 때 쓰던 원서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요약정리를 했어요.”

이두환 동문 (2013졸업, 분당차병원 근무, 현 Canada RN 시험준비중)

Q : NCLEX-RN 자격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로 편입하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인 캐나다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간호사는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미국 간호사는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병원에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 동안 먼저 미국간호사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다른 두 나라이지만 캐나다 간호사 시험이 2015년부터 같은 NCLEX-RN으로 변경되었기에 나중에 캐나다 간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 NCLEX-RN을 위해 어떻게 공부 하셨나요?

A : IGN(International Global Nursing) 수업 때 쓰던 원서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요약정리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제 서류를 평가하는데 대략 8개월이 걸린다고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천천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인터넷강의를 들으면서 요약노트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서교과서에 없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다닐때 공부했던 원서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이 두 달 남은 시점에 인터넷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최근 문제의 경향을 익혔으며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거의 도서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두꺼운 원서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공부량이 방대한 만큼 시간과 우선순위를 잘 분배해서 공부하세요.”

남경희 동문 (2012졸업, 삼성서울병원 근무,
현 121 Army Community Hospital 병원 채용확정)

Q : 우송대학교 후배들에게 조언이 되는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NCLEX-RN이 내용이 방대하지만 임상에서 쓰이는 지식들이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유무를 떠나서라도 공부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중요 단원 먼저 공부했는데, 해당부분이 그만큼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NCLEX-RN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공부량이 방대한 만큼 시간과 우선순위를 잘 분배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추천해준 요약 강의를 3주 동안 들었어요”

최우원 재학생

Q : NCLEX-RN 취득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 NCLEX-RN 준비를 위해 먼저 Fairmont대학 졸업 후, 학교에서 추천해준 요약 강의를 3주 동안 들었습니다. 더불어 학교 교수님께서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해주셔서 매일 하루에 100개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영어로 된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후에 NCLEX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후배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송대 졸업생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결성해서 동기부여를 얻었어요.”

박근정 동문 (2012졸업, 충남대학교병원 근무)

Q : NCLEX-RN 취득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 NCLEX-RN 취득을 위해 우송대 졸업생들과 함께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였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면허취득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부서장님께 시험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온라인강의를 들으며 준비했습니다. 병동의 동기도 이런 저를 보고 함께 NCLEX-RN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원서로 시험공부를 하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더군요. 저는 재학시절부터 수업 때 사용한 교과서라서 친숙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시험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합격을 하니 무척 기쁩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세요.”

문형주 동문 (2012졸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근무)

Q : 우송대학교 후배들에게 조언이 되는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우선, NCLEX-RN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기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며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꼭 면허를 취득하겠다’라고 맘을 먹고 목표를 세우니 가능하였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LA 해외연수 - 김아림 동문, 2014졸업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기 졸업생 김아림입니다. 2014년 3월부터 분당차병원 재활병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차병원에서 10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Q. 어떻게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나요?

일하고 몇 개월 뒤 병원에서 LA 차병원 연수에 관해 전체 공고가 났습니다. 학생 때부터 미국 간호사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터라, 수간호사님께 연수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서류작성과 미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최종으로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병원 면접 준비하실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병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과연 이 병원이 원하는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일까'와 관련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의 특성이나 비전 등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답변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제 신념도 같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답변들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분당 차병원에 취업하고 해외연수를 가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직도 제가 해외연수를 마쳤다는 사실이 잘 안 믿깁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까지 일하다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10주라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병원 시스템이나 문화, 간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보람차고 저 같은 신규 간호사에게는 정말 흔하지 않은 기회가 주어져서 행운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Q. 선배님처럼 해외 연수를 꿈꾸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국 간호사를 꿈꾸거나, 미국 연수를 꿈꾸는 후배님들! 기회는 어디에서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연수 가기 전 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제가 해외연수를 갈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인터뷰도 하게 되었네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이 제가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이잖아요?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자 인터뷰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페어몬트로 가다!



김지현 (2013년 입학)

Q. Fairmont State University (FSU)에 갈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이유 등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 FSU를 통한 복수학위프로그램은 3학년 1학기 말 영어교수님의 추천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회가 있었던 2학년 때에는 복수학위 취득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탓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에게는 미국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특히나 영어를 지금까지 배우고 접했음에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FSU 대학생활로 좀 더 견고한 영어 실력을 쌓아 이 아쉬움을 해소하고, 미국 생활의 경험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학년 때에는 FSU 진학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우선 가깝게는 2년간의 미국생활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미국 간호사 면허증인 NCLEX-RN을 먼저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느 선배들처럼 우송대 학사취득, 병원에 입사해 경력을 쌓으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것 입니다. 제 꿈은 간호학과 교수니까요.



정유진 (2014년 입학)

Q. FSU에 가기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

A.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 할 때 뒤처짐이 없도록 영어 공부를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니기 보다는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Q.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A. 먼저 미국에 가서 공부 하는 것이니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NCLEX-RN을 꼭 따고 싶고, 졸업후에는 상처장루 전문 간호사 자격증인 WOCN(Wound Ostomy Continence Nurse)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유혜빈 (2014년 입학)

Q. 공부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A. FSU에 지원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과 토플 점수가 필요합니다. 최소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지원하는 친구들의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스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치열하게 1학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학점은 공부를 하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서 함께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복습도 꾸준히 하고 사소한 과제라도 버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플공부는 학기 중에는 너무 바빠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계절학기나 방학 때 공부했습니다. 토플은 4가지 영역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응시료도 비싸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플이라는 시험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 유형을 파악하고 시험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전공서적을 전부 원서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전공수업을 외국인 교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reading과 listening영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James교수님의 writing club을 하면서 speaking 및 writing부분에서 양질의 무료 첨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겨울 학기 때 보건복지대학에서 제공한 무료 토플 수업도 성적 향상에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은?

A. 일단, 학생이고 공부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학점관리를 성실하게 해서 무사히 2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직업이므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직종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미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이해의 폭을 넓혀오고 싶고, 세계화 시대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영어회화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 중 하나는 진출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에서 학점과 공인영어성적을 잘 받아 좋은 병원에 취업하기보다는, 보다 더 큰 꿈을 향해 항상 도전하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자 우송대학교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이주연, 노희주 기자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conference CNR 2015 Seoul 회의 자원봉사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를 6월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하였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은 뛰어난 영어, 제2외국어 실력으로, 회의 기간 중 외국 참가자의 통역과 안내 등의 역할을 맡았다. 김영균 학생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국가 참가자들의 통역을 맡았고, 김나윤 학생 외 3명은 ICN 본부 행사 및 각국의 간호사, 학생들은 위한 시설안내 통역을 수행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나윤 학생은 "관리팀 대표 역할을 맡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다양한 국가의 간호사들도 만나고 그 분들에게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던 기회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후배들도 다음에 이러한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류수진 기자

제 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 학부모 간담회



2015년 5월 22일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정수경 교수와 james교수가 한국어와 영어로 공동 진행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John E. Endicott 총장과 김성경 이사장이 각각 기념사와 축사를 하였으며, 이어 대전 시간호사회 이강이 회장의 축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간호학과 Monica 교수의 지도하에 1,2학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I will be there' 를 합창하였으며, 간호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의 합주가 선서식에 감동을

을 한층 더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번 선서식의 주인공인 김지현 외 74명의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들은 글로벌 간호리더를 지향하는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답게 한글과 영어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여,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새 출발을 기약하였다.

❖ 류수진, 김유빈 기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 부모님, 교수님 모두가 유쾌했던 간담회 시간!



2015년 5월 22일 나이팅게일 선서식 이후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부모님과 3학년 학생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정은영 학과장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경과보고와 교수진을 소개 후, 자녀들이 기숙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실 부모님을 위해 기숙사 각 방을 기습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였다.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은 학생과 부모님 모두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만든 시간이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합창과 학생들이 직접 사진을 넣고 편지를 적어서 만든 동영상을 통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부모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모님들의 재치 넘치는 질문에 모두가 유쾌한 시간이 되었다.

❖ 이하영 기자

간호학과, 우송대학교 BEST PRACTICE 선정

우송대학교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Best Practice"를 공모하였다. 그결과, 간호학과는 "Global Proficiency program for nursing Student(GPS)"라는 주제로 Best Practice 학과에 선정되어, 1년에 걸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간호학과는 GPS Program을 통해, 단순 토익성적향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영어권, 중국어권, 아랍어권 및 러시아어권 등에서 Global nursing camp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간호 환경을 이해하고, 국제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GPS(Global Proficiency program for nursing Student)

배경

- 국내 외국인 환자의 증가
- 간호인력 글로벌 특성화 교육과정 추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2 중동 붐

주요추진내용

- 영어회화능력 향상
- 제2외국어능력 향상
-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교재개발
- Global Nursing Camp

목적

- GPS (Global Proficiency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다양한 특강소식

특강 1 국제보건의료분야의 이해 특강

주제 : 국제보건분야,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전창배 본부장 -



전창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외협력사업본부장의 국제 보건에 대한 특강이 2015년 5월 15일 16시,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전창배본부장의 정부차원의 개발도 상국, 북한, 해외재난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설명을 통해 '간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또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류수진 기자



특강 2 글로벌 간호사 양성 특강

주제 : 국제진료 현장의 이해
-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수량 팀장 -



2015년 5월 13일(수) 16시부터 서 캠퍼스 우송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수량 팀장이 '국제진료 현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 학년이 참가하여 국제진료 현장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진료의 전반적인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자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한 국제진료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강으로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국제진료와 외국인 환자에 대해 이해하고 글로벌 간호리더로서 한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산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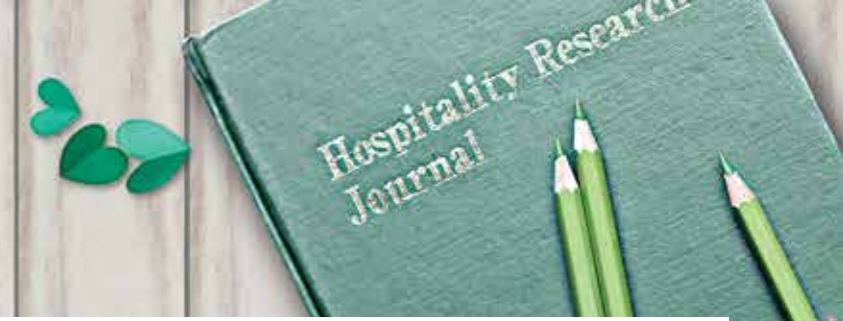
특강 3 국내보건의료분야의 이해 특강

주제 : 보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 보험공단 대전지부 건강상담센터장 안순기 -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우송타워 4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부 안순기 건강상담센터장의 보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보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 보건소등 지역사회의 간호 및 보건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강이었다.

❖ 류수진, 최수지, 김민주 기자



1 2015학년도 입학식

2015년 3월 2일 우송예술회관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ROTC 학생들의 멋진 호위와 함께 입장한 총장님과 이사장님의 환영인사와 더불어, 한국, 중국 및 외국인 신입생 대표 선서가 있었다. 멋진 목소리의 '우송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은 입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다.



2 간호학과 신입생 Orientation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2015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었다. 신입생 환영회는 간호학과장의 환영사, 학과 소개 및 Fairmont State University에 재학중인 선배들의 환영인사 순서로 진행되었. 이어서 14학번이 제작한 일본어 동영상 (주제 : 극한 직업 - 과대표) 및 2015졸업생 박소희 동문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이 있었다. 또한, 신입생의 성공적인 학과 적응을 위한 James Popkoski 교수의 영어 practice방법에 대한 강의와 간호학과 러시아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빅토리아 교수의 '왜 러시아어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 되었다.



❖ 류수진, 이하영 기자

3 상큼 발랄한 우송대학교 새내기들의 축제 "새내기 콘테스트"

2015년 4월 1일 우송대학교 예술회관에서는 2015년도 신입생들의 춤, 노래 등으로 다양한 끼를 발산한 '새내기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새내기들의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별 학생회장들이 춤을 준비하여 화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개그맨 윤성호가 콘테스트의 MC를 맡았고 각 과의 새내기들은 총 16개의 팀을 이루어 자신이 준비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간호학과와 조은수 외 5명은 비운세의 'Partition'과 포미닛의 '미쳐' 의 노래에 맞추어 16개 팀들 중 15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유명 랩퍼인 바스코가 새내기 콘테스트의 축하무대로 'I'm back' '로열로더' 랩을 하였다. 이날 간호학과는 수상을 하지 못하였지만 간호학과 최초로 새내기 콘테스트에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나가서 큰 호응을 얻었다.



❖ 최수지, 이주연 기자



4 간호학과 선후배가 하나되어 즐기는 시간

2015년 4월 2일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스포츠센터에서 간호학과의 MT가 진행되었다. 선배, 후배, 교수가 인사를 나누며 얼굴을 익히기, 포크댄스, 팀웍이 빛나는 퀴즈,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으며, 새내기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한 1학년 팀과 학생회 임원들의 화려한 댄스는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 노희주 기자



5 스승의 날 행사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도서관 강당 에서 스승의 날 행사가 열렸다.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학년이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 행사는 김지현 학생 대표가 편지를 낭독하며 시작 되었다. 편지낭독 후 학생들이 쓴 롤링페이퍼와 꽃 그리고 교수님 한분 한분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생각하며 준비한 양키 캔들을 전달하는 선물증정의 시간이 있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며 고른 선물에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를 방문한 11학년 선배들이 강단에 올라가 후배들에게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은혜'를 학생들 모두가 함께 부르며 스승의 날 행사를 마쳤다. 1시간 남짓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고 애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다.

❖ 이하영 기자



6 우송대학교 체육대회의 뜨거운 열기속으로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간호학과는 농구와 계주에 참가하였다. 농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준결승에 진출하여, 스포츠 재활학과와 막상막하의 상황까지 가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었으나, 아쉽게도 27:25로 승리를 넘겨 주었다.

체육행사의 꽃인 계주경기는 우송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경기인 만큼 응원의 열기도 대단하였는데, 계주 선수로 간호학과 학생회장과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최선의 경기를 보여주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비록 체육대회에서 입상은 하지 못하였으나, 간호학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응원하면서 단합과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 노희주 기자



7 미리 가 보는 대학

2015년 5월 22일과 7월 11일, 우송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인 '미리 가 보는 대학'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예술회관에 모여서 학교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오후에는 각 학과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간호학과에서는 "외국어, 이렇게 하면 쉬워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발표를 하였다. 영어는 Fairmont State University에 재학중인 김예원 학생이, 일본어는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에 연수를 다녀온 백효진 학생이 발표를 하였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같은날 진행된 '제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미래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모의 실습 병원인 'Sol-Hospital'에서 실제 사람과 유사한 Simulator(Physico)를 통해 심음, 기관지음, 장음을 들어보는 시간과 혈압계로 직접 혈압을 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님들과의 면담과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 류수진, 최수지 기자



THANK YOU

2015년도 1학기를 보내며...



학회장_3학년 김지현

안녕하세요. 학회장 김지현입니다. 2015년도 1학기 학생회 선출, 처음 여러분 앞에 섰던 학기 첫 전체미팅, 문화국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MT, 총장기 축구대회, 교수님들과 4학년 선배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맺은 인증평가, 농구, 피구, 발야구, 계주 등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는 체육대회,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했던 스승의 날 행사, 그리고 글로벌 인류를 위해 희생이 따르고 인내해야하는 숭고한 간호사로서 한 발짝 다가간 간호학과의 꽃, 3학년을 축하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쏟아져 쏟아져 1학기를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고 아쉬움이 남지만 한편으론 하나하나 배움으로, 추억으로 남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라는 길면 긴 시간 짧으면 짧았던 시간동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편집국장_3학년 류수진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1학기 편집국장을 맡은 13학번 류수진입니다. 처음 학생회를 뽑을 때 편집국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국이 끝날 때까지 제 자신이 잘 할 수 있을까? 편집국 부원들에게 스트레스는 주지 않을까?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행동을 했던 거 같습니다. 학과의 일원으로 학과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번년도 학생회는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어 여러 마음을 가진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 같습니다.

- 각 학년 대표 -

1학년 대표 송우영

입학을 하고나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기말고사까지 달려와 벌써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입학을 할 때는 친구를 어떻게 사귄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선배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하는 많은 고민을 안고 왔는데 우송대 간호학과답게 친구들도, 선배들도 착하고 정도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과대표라는 일도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콘테스트나 체육대회 같은 큰 행사도 많았지만 학생회 부원 모두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해줘서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잘 한 것 같아 저도 내심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기가 바뀌면 새로운 과대표를 뽑을 텐데 막연히 대표가 된다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고 꼭 한 번 도전해 보면 느끼는 것도 많고 한층 성장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배울 것들 노력할 것들 많이 남았지만 모두들 졸업할 때까지 미래를 위하여 도전하는 자세로 남은 시간을 잘 보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대표 문예진

안녕하세요. 2015년 1학기 2학기 과대표 14학번 문예진입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지만 짧은 시간 동안 1학년 때 해보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과대표를 맡았을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육대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즐거움과 보람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과대표였지만 한 학기 동안 문제없이 잘 따라와주고, 힘들 때 마다 응원과 격려를 해준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 선배님,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발전된 간호학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대표 서아영

이번 학기 과대표를 맡으면서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배운 점도 많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고 일을 할 때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제가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고,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응원도 해줘서 지금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했던 교수님에게서 귀엽고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과대표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지만, 이 일을 기회로 좀 더 주위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양보 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저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 교수님들 모두 사랑해요!

4학년 대표 김건

학업과 실습, 취업준비 속에서 과대표로서의 본분과 게으른 천성 사이에서 줄다리기가길 여러 번, 어느덧 1학기가 끝나갑니다. 스트레스도 여러 번, 회의감도 여러 번 들었으나, 돌이켜보니 많은 것을 배운듯합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법, 모두에게 공평하기, 그리고 겸손하기,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부지런히 살아야 했고,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우들과 소통이 많아졌고, 일정을 보고하고 보고 받다 보니 교수님들과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같던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왔을 땐 바빴던 1학기가 그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번 실수해서 강의실 옮기고, 아침에 수업 취소했는데 학교에 온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잘 따라와 준 4학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힘내라고, 고생한다고 응원해주신 친구들에게 고맙고, 항상 고생하시는 학생회나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학기엔 새로운 학생회들과 함께 끝까지 힘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9호 2015년 2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